세상을 보는 송호인의 눈

송호신문 창窓

발행인 이기평 | 주간교수 이은경 | 편집장 김미지
주소 25242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남산로 210 송호대학교
이메일 songhonews@songho.ac.kr
홈페이지 www.songho.ac.kr
2015년 11월 27일 금요일 | 10호

'2015 강원진로박람회'에 우리대학교 3개 학과 참가



◇강원진로박람회에 참석한 치위생과 학생이 직업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우리대학교가 지난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횡성문화체육공원에서 개최된 '2015 강원진로박람회(횡성군, 강원도교육청 공동주관)'에 참가했다. '꿈 너머 꿈을 향해, 꿈 잡(JOB)고(GO) 길 잡(JOB)고(GO)!'를 주제로 진로 관련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했다. 더불어 내년부터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도입과 맞물려 공공기관, 민간기업, 대학 등 진로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강원 진로 박람회는 진로상담관·IT정보관, 야외 직업체험관, 직업체험관, 특강·공연·전시관 총 4개관으로 구성하여 진행했다. 우리대학교는 스포츠레저과(전동스케이트 체험), 임상병리과(혈액형 검사 체험), 치위생과(치카푸카 구강사랑 체험) 3개 학과가 참여했다. 해당학과의 특성을 살린 직업체험프로그램으로 박람회장을 방문한 도내 초·중등 학생들의 적극적인 체험활동을 이끌어내고 자유학기제 시행에 맞춘 진로, 적성 상담을 통해서 자기주도적인 진로 설계에 도움을 주었다.

민병희 교육감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학생들이 앞날에 대한 기대와 설렘, 호기심을 갖게 되었으면 한다"며 "자신의 꿈과 적성, 비전에 대해 넓고 깊게 탐색하여 간절히 원하는 무언가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진로 박람회에는 도내 중학생과 초등학교 5·6학년, 학부모와 교직원 등 15,000여명이 참가했다. 전민지 기자

송호대학교-한국능률협회, 산학협력체결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평생직업교육 발전을 위한 MOU체결



우리대학교(총장 이기평)와 한국능률협회(대표 최권석)는 지난 12일 우리대학교에서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우리대학교 이기평 총장, 이기호 기획실장, 한국능률협회 대표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채용식 평생직업교육대학장 주관으로 진행됐다. 양 기관은 NCS(국가직무능력표준)기반 교육과정 개편, 비학위과정 개발 및 지원,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과 평생직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상호정보를 교류하고 홍보 및 개발·지원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교육, 연구, 교육장 등 두 기관이 상호 구축한 인프라를 공동으로 활용하여 취, 창업 자원 및 전문대학의 직업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 연구 부분에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으로 협약을 맺었다.

한국능률협회는 1962년, 기업인들에 의해 설립된 단체이며 경영자 교육본부, 인재개발 부문, 글로벌 사업부문, 네트워크 사업부문, 가치창조 부문 등 5개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평생교육, 경영컨설팅의 역할을 하고 있다. 김미지 기자

제2회 입사서류 및 면접 경진대회 시상식 열려

우리대학교 취·창업지원 센터가 주관하는 제2회 입사서류 및 면접 경진대회 시상식이 지난 10월 29일 송호관 제 3강의실에서 열렸다. 2014년 처음 개최된 경진대회에 이어 금년에 제2회 대회가 실시되었으며 입사서류 참가자 120명과 면접 참가자 30여명 등 150여명의 참가자 중 50명의 입상자가 결정되었다.

예선과 본선 심사를 거쳐 입사서류 부분에서는 최우수상 김귀연(간호과 3) 등 총 40명의 입상자가, 면접 부분에서는 최우수상 양승란(간호과 3) 등 10명의 입상자가 선발되었다.

이번 경진대회는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이해와 탐색의 시간을 갖도록 유도하고 구직에 대한 자신감뿐만 아니라 효과적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취업 스킬을 향상시켜 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대회이다. 이 날 시상식에서는 면접특강, 모의면접 참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되어 우리 대회의 취업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입사서류 경진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귀연 학생은 "이 대회를 위해 많은 준비를 했는데 영예의 최우수상을 받고 보니 그동안의 노력이 보상받은 것 같아서 기쁘다"면서 "앞으로 원하는 회사에 취업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겼다"고 전했다. 소선민 기자



◇면접을 진행하고 있다.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 2단계 개설
'지역주민의 취·창업을 돕기 위해'

우리대학교 평생직업교육대학에서는 10월 23일 개최한 1단계 평생직업교육대학 개강식을 시작으로, 2단계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을 11월 23일 개설한다.

이번에 개설된 프로그램은 지역 주민들의 취업과 창업을 돕기 위한 일환으로 성인학습자, 미취업자, 경력단절여성,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 누구나 수강할 수 있는 단기 비학위과정이다.

개설된 과정은 한우산업전문가 과정, 한(韓)브랜드 전문가 과정, 레져·힐링 전문가 과정, 뷰티산업전문가 과정, 의료·상담·복지·운동 전문가 과정, 통신 및 정보기술 전문가 과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39개의 세부 과정 프로그램들이 있다.

이 과정들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생애주기형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자기계발을 돕고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현장실무 중심형 인재양성을 목표로 한 것이다. 김미지 기자

2016학년도 송호대학교 신입생 모집

정시 1차 | '15. 12. 24(목) ~ '16. 01. 05(화)
합격자 발표 | '16. 01. 11(월)
합격자 등록 | '16. 01. 29(금) ~ 02. 02(화)

자율모집 | '16. 02. 06(토) ~ 02. 27(토)
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합격자 등록 | '16. 02. 08(월) ~ 02. 27(토) 18:00까지

송호대학교만의 5가지 강점
1. 학자금 걱정 없는 든든한 장학제도
2. 편리한 통학환경
3. 전학과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교육과정 운영
4. 쾌적하고 생활비 부담없는 기숙사 생활
5. 특성화대학으로 교육인프라의 지속적인 발전

교육복지분야 | 유아교육과(3년제), 사회복지과(야간)
보건의료분야(3년제) | 보건행정과, 간호과, 방사선과, 임상병리과, 치위생과
관광레저분야 | 관광(대명)리조트과, 스포츠레저과, 뷰티케어과, 호텔외식조리과

입학문의 | 입학처 033-340-1041~2 iphak.songho.ac.kr
(우) 25242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남산로 210 송호대학교 FAX | 033-340-1047 facebook

2015 송호 명량 체육대전



◇팀이 이기길 바라며 열심히 응원하고 있다.



◇피구 경기가 한창 진행중이다.

송호 명량 체육대전이 지난 9월 24일 운동장과 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번 체육대회는 4개의 팀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A팀은 뷰티케어과, 방사선과, 임상병리과 B팀은 유아교육과, 사회복지과 C팀은 스포츠레저과, 간호과 D팀은 보건행정과, 호텔조리과, 관광(대명)리조트과로 구성되었다.

체육대전은 기획실장(이기호)의 개회사로 막을 올렸으며 학생들 간의 교류, 협력, 단결을 위한 친선경기였다.

경기종목은 피구, 발야구, 축구, 단체줄넘기, 줄다리기, 족구, 배드민턴, 농구, 제주 등이었다. 참가한 학생들은 체육대전을 통해 학생들끼리 선의의 경쟁을 하며 서로 존중하고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으며, 협동의 의미도 되새겨 볼 수 있었다고 전했다.

결과는 종합 1등에 C팀, 2등은 A팀, 3등은 B팀에게 돌아갔으며 각각 소정의 상금도 주어졌다.

김한솔 기자

학부모교육 '아빠 쿠킹 클래스' 실시

-자녀와 함께하는 아빠 참여 수업 진행-



◇아빠와 아이들이 함께 쿠키를 만들고 있다.

지난 10월 10일 우리대학교 호텔외식조리과와 횡성 어린이 급식지원센터가 연계하여 '아빠 쿠킹 클래스'라는 수업이 진행되었다. 본 행사는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쿠키를 아빠와 자녀가 함께 직접 만들어보고 시식도 하는 행사로 횡성군 어린이 급식지원 센터에서 선발한 40 여명의 아빠와 자녀가 참가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호텔외식리과 김나영 교수는 "생각보다 학부모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어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수업에 참가했던 박효빈 어린이는 "아빠와 함께 직접 여러 가지 쿠키를 만들어 보고 맛있는 쿠키를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라고 말하면서 이런 수업이 계속 이어지길 바랐다. 소선민 기자

유아교육과 '한울제' 개최



◇한울제 공연팀과 참석한 유치원 아이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지난 11월 5일 우리대학교 유아교육과가 창조관 종합강의실에서 '한울제'를 개최하였다. '한울'이라는 뜻은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으로 한 울타리의 정신을 가지고 화합한다는 의미이다. 이날 행사에는 횡성, 원주 인근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영유아 약 330명이 방문했다. 이번 한울제는 '자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직접 구성하고 꾸민 리듬합주, 인형극, 율동, 국악, 동극 등의 공연을 했으며, 유아들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교재·교구 활동도 실시하였다. 또한 가을들판을 배경으로 한 '포토존'을 설치하여 방문한 유아들이 사진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올해로 13회를 맞은 한울제는 유아교육과의 오래된 행사로서 학생들이 그동안 배웠던 지식, 경험, 기술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는 현장실습의 장이며, 이는 졸업 후 취업에도 도움이 된다.

행사에 참여한 신나라(2학년) 학생은 "한울제를 통해 선·후배간의 우호적 교류와 서로 돈독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며, 교재·교구 만들기와 인형극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취업 후 교사생활을 할 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김도연 기자

명품 치위생사가 되기 위한 전략을 세워라!

지난 10월 23일 우리대학교 창조관 1층 종합강의실에서 치위생과 재학생들과 교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취업 창업 전문가 초청 특강이 열렸다.

취업 창업 전문가 초청 특강은 우리대학 평생직업교육대학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프로그램이다.

매년 '취업지원관 지원 사업 운영기관 과 평가'에서 우수대학으로 선정되는 우리대학교 취업 창업을 위한 전문가 초청 특강 및 채용설명회는 주 1회 운영으로 총 13주간 진행된다.

이번 특강은 서울 한양대학교 병원의 윤서형 치위생사를 초청하여 '명품치과위생사가 되기 위한 전략적 취업준비'를 주제로 치위생사 준비 과정, 졸업 후 진로, 취업 성공 전략 등 경험을 담은 생생한 강연이 이루어졌다.

강연을 마친 윤서형 치위생사는 "생각의 차이가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다. 명확한 목표와 비전으로 자신을 브랜드화하고 인생을 경영하는 치과계의 숨은 고수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민지 기자

도서관 행사 '책을 읽는 향기' 실시

지난 10월 12일부터 11월 13일까지 우리대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향기'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독후감 행사와 독서퀴즈 두 가지로 진행되었다.

독후감 분야는 행사 기간 중 도서 대출 3회 이상인 학생에게 주어지며 형식은 편지, 감상문, 그림일기, 포스터, 잡지표지, 만화 등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했다. 독서 퀴즈 분야는 행사기간 중 매주 월요일 오후 12시, 진선미관 앞 게시판과 도서관 북도 게시판에 게시되는 독서퀴즈 문제를 보고 답안지를 작성하여 대출대에 제출하도록 했다.

시상은 독서퀴즈부분에서는 매주 2명씩 추첨을 통하여 교내 Grazie, CU 쿠폰이 지급되었다. 독후감 부분에서는 최우수상을 비롯하여 총 10명에게 수여되며 시상식은 11월 26일 실시될 예정이다.

김효정 기자

홈페이지 : www.songho.ac.kr 페이스북 : www.facebook.com/songhocollege

송호대학교 신문사 4기 수습기자 모집

자원자격
1. 글쓰기를 좋아하고 배우고 싶은 사람
2. 인터뷰 및 사진촬영 등 취재활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
3. 성실한 사람

활동내용 한 학기에 2번 신문발행

활동혜택
1. 학생기자 임명장 수여
2. 학기당 96만원 장학금 지급



자원방법
지원자격 우리대학교 15학번
접수방법 창조관 1층 신문사실에 제출 (mj9016@naver.com)
모집일정 상시모집

전화 : 033-340-1027 편집장 김미지 010-4010-5160 E-mail : mj9016@naver.com KAKAOTALK : mjmj9016

취업캠프 행사에 60여 명 참가

취·창업 지원센터 주관 학생 만족도 높아



우리대학교 취·창업 지원센터 주관으로 취업캠프 행사가 지난 11월 5일부터 6일까지 1박 2일에 걸쳐 웰리힐리 파크에서 진행되었다. 평생직업교육대학 지원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2015학년도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보건행정과, 임상병리과 학생들이 참가했다.

'SIP 글로벌'에 위탁하여 실시된 캠프 운영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제 1일차에는 팀빌딩을 시작으로 취업전략 경력로드맵, 취업이미지 메이킹, 자기소개서 작성법, 자기소개서 1:1 첨삭지도 등으로 진행되었다.

제 2일차에는 1분 자기소개 및 모의 면접이 진행되었다. 교육활동 참가 학생 중에서 우수자를 선발하여 시상도 이루어졌다.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은 실전 같은 취업캠프를 통해 자신의 미흡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앞으로의 취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며 만족감을 표현했다.

김효정 기자

우리대학교 치위생과 제 2회 예비치과위생사 선서식 개최



◇치위생과 학생들이 휘장을 수여받은 후 촛불의식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대학교 치위생과가 29일 창조관 1층 종합강의실에서 제 2회 예비치과위생사 선서식 '미소제'를 개최했다.

이날 선서식은 병원 임상실습에 앞서 구강건강 증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예비치과위생사로서 사랑과 봉사정신을 다짐하기 위해 준비됐다.

치위생과 이지영 학생 등 2학년 29명이 참여한 선서식에서 학생들은 선언문 낭독을 통해 치과위생사로서의 올바른 삶과 자세에 대한 새로운 각오를 다짐했다. 선서식에는 우리대학교 주요보직 교수들과 대한치과위생사 강원도협회 조애희회장 등 내·외빈과 교직원들이 참석하여 예비치위생사로 첫 발을 내딛는 학생들을 축하했다.

치위생과 김민아 교수는 "모두가 최선을 다한 덕분에 미소제를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다 학교에서의 배움을 근간으로 지혜로움을 가진 준비된 치과위생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선서식을 마친 이지영 학생은 "미소제를 하면서 경건한 마음뿐만 아니라 치위생과에 대한 자부심도 갖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선영 학생은 "선서식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선서문을 외운 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기억에 남아있다. 축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전민지 기자

'사복인의 밤' 행사

예비 사회복지사 선서식



◇사회복지과에서 행사를 마치고 찍은 단체사진이다.

지난 11월 12일 창조관 1층 종합강의실에서 사회복지과가 주최하는 '사복인의 밤'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우리대학교 이기평 총장을 비롯한 여러 내빈들이 참석하였다.

본 행사는 예비사회복지사로서 인간존중 및 사회정의에 대한 사명의식, 봉사정신에 대한 일깨움을 알려주는 것으로 복지사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자 진행하는 행사이다.

행사의 1부에는 총장의 축사와 내빈들의 격려사가 있었고 2학년 학생들의 예비사회복지사로서의 선서식이 있었다. 2부에서는 1학년 학생들이 준비한 장기자랑으로 행사가 진행되었다.

신재영 기자

방사선과 체육대회

국가고시 합격 기원, 단합 위해



◇국가고시 합격기원을 적은 풍선을 날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지난 10월 14일 방사선과는 우리대학교 체육관과 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실시하였다.

방사선과 체육대회는 3학년들의 국가고시 합격을 기원하고 선·후배간의 단합을 위해 마련 되었으며 축구, 농구, 족구, 파구 등의 종목으로 진행되었다. 이 날 후배들은 국가고시 100%합격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풍선을 하늘에 날렸으며, 선배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편지와 함께 선물도 전해주었다.

방사선과 3학년 학생은 "체육대회를 통해 서먹했던 선·후배 간에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었고 즐거웠다. 또한 후배들의 응원에 더욱더 힘이 난다. 더 열심히 공부해서 국가고시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1학년 조하늘 학생은 "선·후배 간 돈독한 정을 쌓을 뿐 아니라 송호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했다. 김한솔 기자

서울강서라이온스클럽 345-D지구 우리대학교에 장학금 전달



지난 9월3일 우리대학교 송호관 세미나실에서 강서라이온스 클럽의 장학증서 전달이 있었다. 이번 장학증서 전달식에는 우리대학교 교무위원 7명과 서울강서라이온스 클럽 회장을 비롯한 전·현직회장단 등 임원진 11명이 참석했다.

강서라이온스 클럽은 우리대학교의 발전과 재학생들의 학업향상을 목적으로 모범이 되는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장학증서 전달은 9월 3일 본 대학교에서 실시하였고,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전달은 10월 15일 강서라이온스클럽에서 이루어졌다.

강서라이온스 클럽과 우리대학교와의 인연은 우리대학교 설립자인 고 이근엽 이사장과의 인연으로 시작되었으며, 최근 이기평 총장은 강서라이온스클럽 총회에서 감사패를 전달한 바 있다.

김도연 기자

횡성한우 특화산업 인력육성사업 운영

-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



◇횡성한우 특화사업 인력육성사업 교육에 참석한 학생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올해 3월 21일부터 10월 24일까지 우리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고용노동부와 횡성군의 지원을 받아 '2015 고용노동부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횡성한우 특화산업 인력육성사업'이 운영되었다.

이 사업은 횡성에 거주하는 대학 비진학 학생 및 미취업 청년, 정년은퇴자 등 취·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횡성한우를 이용한 신메뉴 개발 및 가공제품을 통한 조리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횡성의 대표 브랜드인 횡성한우의 명품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창조융합형 고용창출 교육모델을 도입하여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업에 참가한 하남신 씨는 "횡성군과 대학이 연계하여 지역주민들의 자기계발 뿐만이 아니라 취·창업으로 연결되는 실용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하면서 만족감을 나타냈다. 소선민 기자

간호과 나이팅게일 선서식



◇교수님들이 학생들에게 휘장 수여하는 모습이다.

지난 11월 5일 우리대학교 도약관 3층에서 간호과의 나이팅게일 선서식이 있었다.

나이팅게일 선서식은 임상 실습을 하기 전, 예비 간호사로서의 자세와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여 전문 간호인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치르는 의식이다.

나이팅게일 선서식에 참석한 한정은 학생은 "이번 선서식을 통해 나이팅게일의 희생정신을 본받아 환자들에게 헌신하는 간호사가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며 "실습기간동안 열심히 경험을 쌓고 그 경험과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접목하여 훌륭한 간호사가 되겠다"고 전했다.

우리대학교 간호과는 2012년에 신설되었으며, 지역사회 의료기관과 임상실습 MOU를 체결하여, 우수한 보건인을 양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올해 2월에 졸업한 간호과 학생들은 간호사 국가고시에 전원 합격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신재영 기자

입학처 여운태 팀장, 교육부장관상 수상



◇여운태 팀장

우리대학교 여운태 팀장(입학처)이 교육부가 수여하는 "2015년도 전문대학 우수 직원 표창"에 선정되어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여운태 팀장은 2004년도 우리대학교에 입사하여 교학처, 사무처, 학생처, 산학협력단 등을 거치며 학사행정의 체계화, 학생민원 해결, 교원인사제도 구축 및 확립, 산학협력의 활성화를 하는데 기여했다.

그는 평소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자신의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으며 입학처 팀장으로서 입시 행정업무의 체계화 확립에 노력하고 있다.

그는 "지역의 인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함으로써 지역과 대학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미지 기자

사회복지과 야간 07학번 배현순 동문 '이마고 부부치료사' 자격증 취득



◇사회복지과 배현순 동문

사회복지과 야간 07학번 배현순 동문이 '국제공인 이마고 부부치료사' 자격증을 획득했다.

배현순 동문은 "저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고 힘들게 시간을 쪼개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굳은 결심과 의지만 있다면 자신의 목표를 위해 힘든 상황과 여건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신이 원하고 꿈꾸는 일이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말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꾸준히 노력하세요. 반드시 그 꿈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 합니다"라고 전했다.

'이마고(IMAGO)'란 라틴어로 '이미지'란 뜻이다. 이마고는 부부상담 치료를 할 때 쓰는 기법 중 하나이다.

심리학자이자 부부치료 전문가인 하빌 핸드릭스 박사에 의해 처음 시작된 이마고 치료는 부부가 서로의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하며 갈등에서 벗어나 점차 안정적인 관계로 만들어가는 치료 프로그램이다.

그는 현재 장애인보호 작업장 보람원의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신재영 기자

횡/성/소/식

제 11회 횡성한우축제 성공리에 마쳐

- 국내외 방문객 83만 여명 다녀가 -



◇축제에 참가한 아이들이 소 여물주기 체험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명품 축제 중 하나로 자리 잡은 제 11회 횡성한우축제가 지난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횡성읍 섬강 둔치에서 '맛보소, 즐기소, 쉬어가소'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축제 첫날부터 많은 방문객들이 몰려들어 인산인해를 이루었으며 6일 동안 83만 여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

이번 축제는 먹을거리마당, 한우문화마당, 지역홍보마당, 흥겨움마당으로 구성되어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세대를 어우를 수 있는 다양한 먹거리와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먹을거리마당은 한우고기 전시판매, 셀프식당, 일반음식점, 가족요리체험, 수상카페, 한우문화마당은 한우주제관, 소발길이체험, 송아지와 함께하는 놀이마당, 외양간체험, 한우놀이터, 한우품평회로 방문객들의 눈과 입을 즐겁게 했다.

또 지역홍보마당은 농특산물 전시 판매, 가족체험행사, 안흥찐빵 전시 판매, 횡성군 홍보관, 외국지자체 문화교류관, 흥겨움 마당은 거리퍼레이드, 한우축제 100배 즐기기, 어린이 놀이터, 가족단위프로그램, 불꽃놀이, 축하공연 등이 펼쳐져 횡성한우 축제를 다시 한 번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축제에 참여했던 우리대학교 유아교육과 1학년 이홍연 학생은 "처음으로 축제에 참가했지만 다양한 먹을거리와 체험행사 등이 있어 유익했다"며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친구들과 함께 참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소선민 기자

동문탐방 방사선과 10학번 백 민 호 동문(일산 동국대 병원 방사선 회계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열심히 하세요!"

2010학년도 방사선과에 입학한 백민호 학생은 졸업 후 일산 동국대 병원의 방사선 회계과에 취업하였다. 그는 취업 했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새로운 자격증 시험에 도전하고 있다.


백 민 호 (방사선과 동문)

–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방사선과 10학번 백민호라고 합니다.

현재는 일산 동국대 병원 방사선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 학교생활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우리대학교가 산 속에 있어 공기도 좋고 공부에 전념하기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보단 공부하는데 가장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또 제가 축구를 좋아해서 수업이 끝나면 친구들이랑 축구를 많이 했어요.

기숙사에 살고 있어서 수업이 끝나면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이랑 모여 운동장 잔디구장에서 신나게 축구를 했습니다. 축구를 하며 공부의 스트레스를 풀었던 것 같아요.

학교를 다니면서 힘들었던 점은 딱히 없었습니다. 한 가지 불편했던 점이 있다면 시험 공부할 때 공부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다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공부는 대부분 기숙사에 들어가서 했어요. 그런데 학교에 건물을 새로 지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이젠 장소를 찾아다닐 필요 없이 공부할 수 있는 후배들이 조금 부러워요.

– 현재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방사선사 일을 하고 있어요. 방사선동위원소를 이용해서 병변의 형태학적이나 생리학적인 것을 검사하는 회계학과 일이예요. 병원에서 일한지 얼마 되지 않은 사회초년생이라 일에 적응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중입니다.

–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음... 후배들에게 해줄 말이라……. 학교에 있는 동안 공부 열심히 하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공부를 하다 보면 지금은 힘들고, 하기 싫고, '왜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지 몰라요. 그러나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그때 열심히 해둘걸'이란 후회가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전공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곳에서 경력을 좀 더 쌓은 다음에 시험을 준비해 볼 예정입니다. 방사선 동위원소 지급감독자 면허증을 따고 싶어요. 이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지금 제게 있어서 첫 번째 계획입니다. 시험을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재영 기자

만학도 인터뷰

아직 늦지 않았어요

유아교육과 13학번 김 정 인 학생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처럼 나이보다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 최선을 다하는 김정인 학생을 만나보았다. 그녀는 57세 나이로 유아교육과에 입학하여 열정을 다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우리도 나중에 나이가 들어 다시 공부가 하고 싶어질 때, 그녀를 생각하며 첫 발을 내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 입학동기가 무엇인가요?

결혼 후 30년 동안 주부로 집안일만 하며 사회생활 경험이 없었어요. 공주처럼 집에서 놀면서 지냈는데 집안 가세가 기울어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돈을 벌어야 했기에 숲 해설가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숲 해설가로 일하다보니 유치원 아이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어요.

아이들에게 숲에 대해, 곤충에 대해서 설명해 주다보니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더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유아교육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 공부를 시작할 때 가족의 반응은 어땠나요?

나를 많이 격려해주고 응원해주었어요. 자녀들이 이제 다 커서 제 손길이 많이 필요 없는 점도 있지만 집안 사정이 좋지 않은데 공부를 하려니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일부러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남편 아침을 차려주고 가끔 안마도 해주며 미안한 마음을 표현했어요. 주변사람들은 "뭐 다 늙어서 공부를 하냐", "집안 사정도 안 좋은데 공부를 하냐"며 싫은 소리를 많이 했지만 가족들은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었어요.

– 나이차이로 인한 학생들과의 거리감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하셨나요?

입학하기 전에 어떻게 적응해야 하나 걱정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입학하고 보니 학과 분위기가 좋아서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또한 만학도인 동기 두 명이 있어 서로 의지하며 학교생활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 졸업 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숲 해설가를 다시 할 생각이에요. 처음 유아교육을 생각했던 그 마음처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재미있게 설명해주는 숲 해설가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졸업하면 60살이라 다른 사람들은 그 나이에 뭘 할 수 있겠냐 할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100세 시대니까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어린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하고 싶은 말은 시간을 적절하게 잘 분배해서 사용하라고 하고 싶어요. 20살이면 여행도 많이 다니고 공부도 많이 하며 바쁠 때니까 시간을 잘 분배해서 계획성 있게 사용하라고 하고 싶네요, 또 '뭐든 할 수 있을 때 하라'고 전해주고 싶어요. 공부든 노는 것이든 나중에 해야지 하면 나중에 시간이 될지


김 정 인 (유아교육과)

여건이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좋다고 말해주고 싶네요.

김미지 기자

학과 탐방

체력적, 정신적으로 항상 에너지가 넘치는
스포츠레저과

주위에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을 가진 친구가 있으면 나까지도 그러한 모습을 닮아가기 마련이다. 우리 학교도 스포츠레저과가 있기에 우리 송호인들이 더 힘차고 밝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항상 에너지가 넘치는 스포츠레저과의 기를 받고자 이번에는 스포츠레저과의 학과탐방을 나서보았다.



◇하계스포츠수업을 하며 찍은 단체 사진



◇동계스포츠수업을 하며 찍은 단체 사진



◇물 깊은 곳에서도 우리대학교 스포츠레저과를 알리고 있다.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베어풋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이 모여찍은 단체사진

– 우리대학교만의 특별한 스포츠레저과

스포츠레저과는 말 그대로 스포츠에 관련된 것들을 배웁니다. 스포츠레저과의 궁극적인 목표는 체육지도자가 되기 위함이예요. 요즘 저희 과의 교육목표가 해양, 동계스포츠의 전문성 향상 이예요. 동계 스포츠는 스노우보드와 스키, 하계 스포츠는 수상스키, 스킨스쿠버, 수영, 윈드서핑, 요트 등 다양한 스포츠에 관련된 선생님이 되기 위해 들어오는 학과입니다.

우리대학교의 스포츠레저과는 전체적인 실기능력 면에서는 탁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들도 다 젊으셔서 현장 실기지도가 가능한 분들이 많습니다. 겸임교수들께서 대부분 국가대표팀 코치 출신 분들이 많으셔서 교수 능력이 다른 대학보다 훨씬 높다고 판단되고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지도효과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대학을 졸업하고 오는 학생들도 많죠.

– 배우는 내용

체육 지도자가 되려면 사람 신체와 환경 그리고 이것에 따른 흐름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생활체육개론, 운동 생리학, 스포츠 해부학, 스포츠 마케팅, 스포츠 사회학, 스포츠 심리학, 운동역학등 기본적인 이론과목을 이수 해야만 하고 관련된 국가고시도 봐야 해요. 이론과목을 이수하게 되면 그때 실기수업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과목과 실기들을 2년 안에 하기에는 벅차요. 그래서 저희는 주말에는 야외수업, 방학에는 합숙훈련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 스포츠레저과의 특별한 운동부

우리대학교 학생들이 보통 스포츠레저과 안에 있는 동아리는 축구부만 있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저희 과에는 세 개의 운동부가 있어요. 축구부, 스키 스노우보드부, 수상스키 웨이크보드부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전체적으로는 같은 과목을 배우면서 개인별로는 특성에 맞게 운동부를 선택하여 전공하는 것이 따로 있어요. 축구부를 학과처럼 나뉘어있는 부서로 생각하시는 학생들도 있으시던데 축구부 학생들도 스포츠레저과 소속이예요. 자랑할 부분이 있다면 운동부마다 많은 상을 수상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스키나 수상스키부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2명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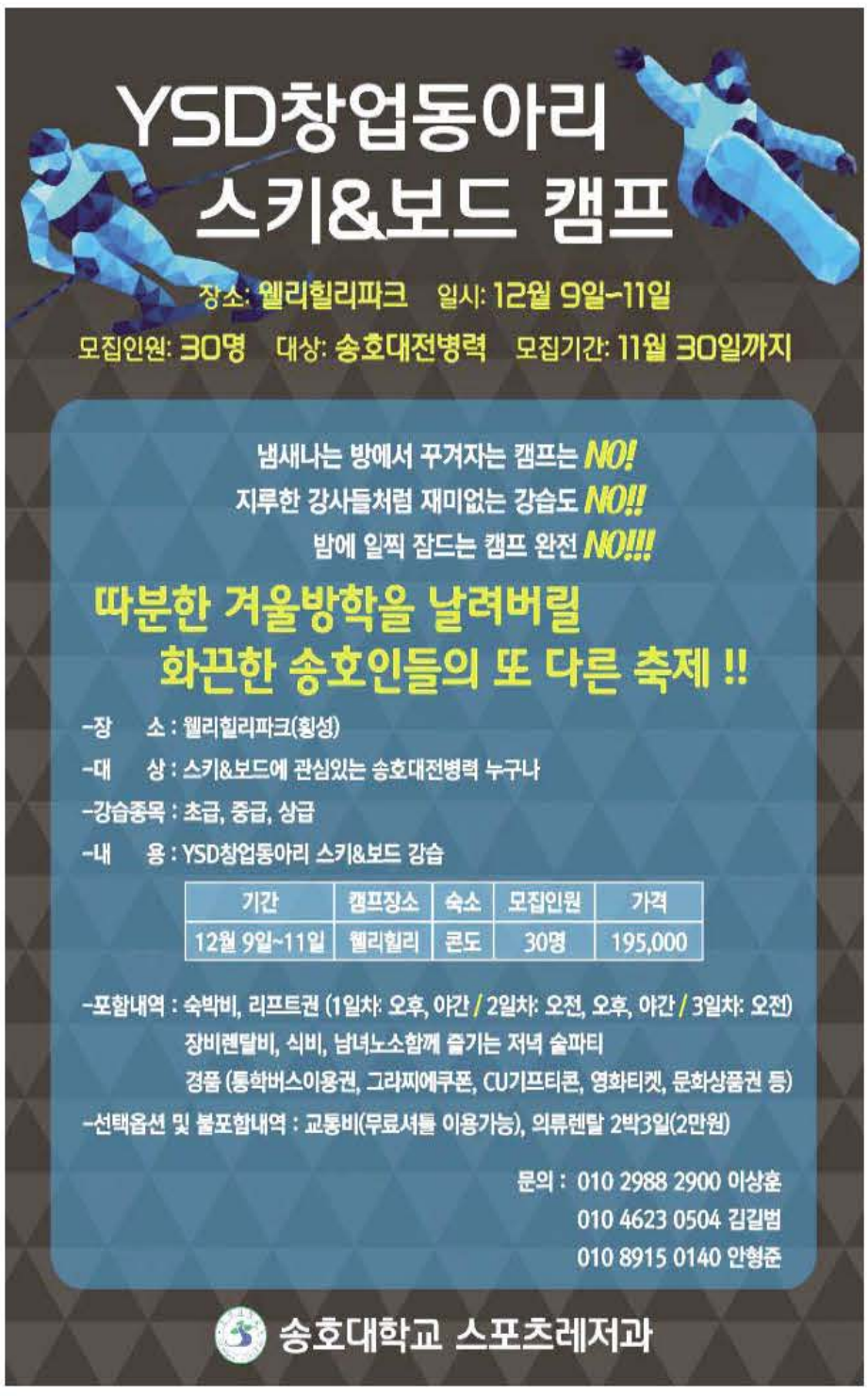
– 송호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자기효능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믿음이 나를 반드시 성공시킨다는 것이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많이 갖고 있기를 바랍니다. 뭐든지 열심히, 또는 완벽히 해야 한다는 것보다는 어떤 일이든 자신감 있게 도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공을 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자신감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자신감이 결여된다면 도전도 못하게 되어있거든요. 할 수 있다고 생각만 들면 못할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을 가끔 보면 자신감이 결여된 모습이 비춰져서 아쉽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과정이 없었다고 해도 매사에 자신감을 갖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충분히 모두가 똑같은 위치에 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소선민 기자



학생들의 발언대

축제·체육대회에 대한 생각

누가 주최하든, 어떤 학교에서 열리든 학생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행사는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지난 행사를 돌이보고, 반성하고, 개선한다면 학생들의 불만을 최소화하여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만들어질 것 같다. 모든 학생들이 기다하며 기다릴 수 있는 축제와 체육대회로 점차 변해가길 바라며 축제와 체육대회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들어보았다.

◆ 엄○○(치위생과)

대학교 입학해서 첫 축제였는데 생각보다 훨씬 재미있었어요. 특히 다이나믹듀오, 스위치 등 연예인의 공연 부분이 제일 재미있었어요. 다음 축제에는 어떤 가수가 올지 기대도 됩니다. 저희 과에서는 주점을 했었는데 모두들 열심히 잘해주어서 축제가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습니다.

◆ 국○○(임상병리과)

이번 체육대회에서 2학년들은 직접 운동경기에 참가하기보다는 1학년들을 응원했어요. 종목도 다양하고 재미있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테니스는 없어서 조금 아쉬웠던 것 빼고는 모두 괜찮았습니다. 축제인 대동제 또한 즐거웠던 기억으로 남아있는데요. 각 과에서 자체적으로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스포츠레저과)

체육대회는 저희 과의 특성상 체육에 능력이 많은 학생들이 많다보니 체육대회 하는데 있어서 학생들의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심판은 학생회 임원들이 보는데 스포츠 규칙에 대해 잘 알고있는 저희 과가 심판을 보면 좀 더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 스포츠레저과에서 심판을 보면 좋을 것 같단 생각이 듭니다.

학교축제는 가수초청과 주점이 주로 이루었는데요, 내년에는 과의 특성을 살려서 단합이 잘 이루어지는 프로그램과 횡성이라는 지역의 특성을 살린 '한우 먹기 행사' 같은 건전한 먹거리 프로그램도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 남○○(보건행정과)

축제 때 신나게 즐겼던 기억이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아쉬웠던 부분도 있었는데요. 초청 가수가 왔을 때 질서의식이 부족하여 조금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학생회 측에서 질서를 잡아주면 모두가 더 신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1학기 때 없는 학우들은 축제를 즐기지 못하고 졸업해야 하는데 1, 2학기 나눠서 진행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체육대회 부분에서는 축구경기에 여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자 학우들 가운데도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축구에 관심이 많은 저로서는 축구경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 김○○(유아교육과)

축제를 하면 게임 등의 행사 대부분을 학생회 주최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학생회 주최와 별도로 각 과에서도 준비하여 주최한다면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과 전체 학생들이 화합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하여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체육대회는 과별로 남녀비율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3개 과씩 묶어서 진행한 점이 좋았습니다.

◆ 정○○(호텔외식조리과)

체육대회는 대체로 만족했는데 축제에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 호텔조리과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리기구를 사용해야 하는데 자리가 너무 협소해서 제 역량을 다 발휘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웠습니다. 내년 축제는 주차장보다 더 넓은 공간인 운동장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모○○(사회복지과)

각과에서 출전한 종목 중에서 운동장에서 하는 경기와 강당에서 하는 경기가 겹쳤을 때, 어디로 가서 응원해야 하는지 당황스러웠습니다. 겹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또한 강당에서 경기를 관람할 때, 너무 산만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 모두가 모여서 관람하고 참여하는 체육대회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의 이모저모

나라별 유아교육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소 선 민
(유아교육과 1학년)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 실태는 과도한 사교육과 입시경쟁 그리고 그곳에서 지쳐가는 청소년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교육으로만 우리가 과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을겁니다. 과연 우리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은 어떤 교육방법으로 아이들을 지지해주고 있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물론 해당 국가들의 교육의 한 단면만을 언급했지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토대로 우리 송호인들도 나중에 한 가정의 주인이 됐을 때 교육관을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스스로 깨우치게 하는 교육, 독일

국가 경제력 세계5위, 하지만 OECD 주도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순위는 언제나 중하위권, 그 나라의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알파벳을 배우고 몇 가지 단어를 암기하는데 걸리는 시간 1년입니다. 1부터 20까지 덧셈, 뺄셈을 수없이 반복하는데 또다시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손가락을 사용하든 발가락을 사용하든 알아서 계산해야하고, 구구단 같은 계산법을 미리 가르쳐주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지켜볼 뿐입니다. 더디더라도 아이들 스스로 자기만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 바로 선행학습입니다. 선행학습은 다른 아이들이 질문할 기회를 빼앗는 것. 또한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엄청난 짓입니다.

그러나 그 교실의 아이들도 벗어날 수 없는 인생에서 처음 맞는 꼭 넘어야하는 자격시험이 있습니다. 바로 자전거 면허증, 수영 인명구조 자격증, 지식만큼 중요한 것은 안전과 여가라고 생각하는 나라 독일, 인간으로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교육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 경제관념 하나는 똑부러지게~ 네덜란드

검소한 네덜란드인의 똑소리 나는 경제교육법. 최근 우리나라 학부모들도 자녀의 경제교육을 위해 네덜란드식 자녀교육법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에게 검소함을 가르치기 위해 초등학교 입학선물은 형제들이 쓰는 학용품을 물려주는 등 검소한 생활방식을 배우게 하고 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덜란드 아이들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동네를 돌며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습니다. 아이들은 무작정 이웃집 벨을 누르고 아르바이트할 만한 일을 찾아보죠. 잎 거리는 세차, 잔디 깎기, 울타리 색칠하기 등 어린아이들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시간당 한화로 6,000원 정도 받는다 해요. '너를 위해 작은 장난감을 사려고 하는데 네가 모은 돈을 합해서 사면 그 물건이 너에게 더 값지지 않겠니?'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아이에게 네덜란드 부모가 하는 말입니다.

사소한 물건이라도 자신이 번 돈으로 구매하게끔 유도하는 거죠. 이런 합리적인 소비가 습관화 되면 아이는 자신의 물건을 소중히 여기기 마련입니다.

– 자신의 체력은 자기가 알아서 책임지도록! 일본

일본인은 자국에 재난이 많고 경쟁이 심하다고 여기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군세게 살기 위해서는 체력과 의지력이 강한 사람으로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죠. 극기훈련은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는 물론 유치원에서도 아이들에게 극기훈련을 시키는 곳이 많아요.

방학에는 합숙을 하며 새벽등산이나 통나무 타기 등 체육 과목을 가르친답니다.

한 겨울에 아이에게 반바지를 입혀 외출시키거나 유치원복도 심지어 반팔인 것이 tv를 보면 종종 보입니다.

또한 수면 시간이 매우 엄격해서 시험공부 때문에 늦게 자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가정이 많아요. 이로 인해 대부분 아이들이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죠. 이밖에도 소식하는 습관을 들인다든가 의식주와 밀접한 습관이 몸에 밸 수 있도록 교육한답니다.

●●● 〈인문학 강좌〉 제 3편 ●●●

한국의 명시(名詩) 감상(鑑賞)-2

- 민중의 삶과 함께한 신경림의 詩세계 -



사무국장 김 현 우
전 은광여자고등학교·
은성중학교 교장

1. 들어가며

신경림은 1956년 『문학예술』지에 「갈대」 등을 발표하면서 등단한 이래 10권의 시집과 다수의 산문집·평론집을 상재한 한국현대시사의 대표적 시인이다. 시인은 등단 이후 10여년간 절필과 침묵의 시간을 통해 자신의 체질에 맞는 시적 정서를 찾아 방황과 숙려의 나날을 보내게 된다. 이 방황의 기간에 그는 버려진 자들, 쓰러진 자들과의 밀바닥 삶을 살면서 그들의 아픔과 절규를 그들의 입장에서 노래할 준비를 하게 된다.



시인 신경림

1973년 시집 《농무》가 발간되었을 때 타성과 안일주의에 빠져있었던 문단이 겪은 충격은 놀라운 것이었다. 종래의 문단 풍토가 일제 때부터 그 뿌리를 키워온 순수문학과 모더니즘론, 혹은 핵심이 거세된 이른바 전통적 서정시의 관습을 근본에서부터 시뭇 뒤집어 엎는 돌풍이자 격랑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의 출현을 평론가 백낙청은 '민중적 경사'라고 규정했다.

신경림은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살아가는 인간들을 포착하고 그들의 이야기(story)를 詩化하려는 점에서 백석, 이용악 등이 시도한 서술적인 시의 전통 위에 서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는 민중들의 일상적 언어를 시어로 차용하고, 절제되고 담담한 목소리로 현실세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신경림 이전의 시들이 주로 시인의 '자기 고백'을 바탕으로 했던 것에 비해 신경림은 화자로서 자신이 아닌 '민중'을 등장시켰다. 신경림 시에서의 '민중'은 체제 전복을 위한 봉기집단이라기보다는 만족사의 애환을 대변하고 역사의 현장과 함께 등장하며 비극적 세계관에 의해서 그러한 현장을 증언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신경림의 시에서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몇 편의 시를 골라 함께 감상해 보고 약간의 해설을 덧붙여 이해를 돕고자 한다.

2. 농민의 곁으로 다가간 시인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오동나무에 전등이 매어달린 가설무대
구경꾼이 들어가고 난 텅 빈 운동장
우리는 분이 엄precision 얼굴로
학교 앞 소줏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콩과리를 앞장 세워 장거리로 나서면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꼬무리기들뿐
처녀애들은 기름집 담벽에 붙어서서
쉴없이 킬킬대는구나
보름달은 밝아 어면 너석은
적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너석은
서림이처럼 헤헤대지만 이까짓
산구석에 처박혀 밭배등천들 무엇하랴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아예 어떤녀에게나 맡겨두고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 들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한 다리를 들고 널라리를 불거나
고개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

– 〈농무(農舞)〉 전문 –

시인의 첫시집 〈농무〉(1973)의 표제가 된 작품으로, 1970년대 초반 산업화로 인해 파괴되어 가는 농촌 공동체의 모습을 그들의 놀이인 농무의 신명에서 찾고 있는 시로, 이미 신명나지 않는 농촌 생활과 이를 안타깝게 지키려는 농민들의 몸짓을 사실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 시에서 보여주는 주인공들의 모습은 서러움에서 흥겨움으로 바뀌고 있다. 그런데도 흥겨지만은 않은 것은, 농민들의 신명난 춤판은 신명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서러움을 이기기 위해 신명을 내 보는 것이기에 더 절절한 서러움만 느껴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현실의 불우한 조건을 넘어선 흥겨운 축제를 표방하고 있는 이 시의 표면적 주제는, 뒷면에 숨겨진 당대의 사회·정치적 현실을 다분히 문학적인 방식으로 고발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시는 산업화의 거센 물결로 인해 급속도로 와해되어 가던 1970년대 초반의 농촌을 배경으로 농민들의 한과 고뇌를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 농촌의 절망과 농민의 울분을 고발, 토로하고 있으면서도, 그 울분이 선동적이거나 전투적인 느낌으로 발전되지 않는다. 그것은 '날라리를 불'고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드'는 '신명'으로 끝나는 작품 구조에 의해서 교묘한 역설과 시적 운치를 얻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시는 울분과 절망을 정반대의 '신명'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농민들의 처절한 몸짓을 통해 그들의 아픔이 역설적으로 고양되는 효과를 얻게 된다.

이 시는 생활 터전을 지키려는 농민들의 안타까운 몸부림을 농촌의 일상 언어를 통하여 사실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농민들의 정취와 정감을 물씬 느끼게 해 주는 한편, 농민들의 격한 감정을 직접적인 서술로 표출하면서도 농부의 동작이나 농악기의 소리로 적절히 제어함으로써 탄탄한 서정성을 아울러 갖추고 있다. 가난과 절망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농민과 소외된 농촌을 상기시켜 주는 뛰어난 문학성으로 말미암아 이 시는 제1회 민해문학상의 영광을 안게 되었다.

3. 가난한 도시 민중과 함께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쌓인 골목길에 새파람개 달빛이 쓸아지는데.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두 점을 치는 소리,
방범대원의 호각소리, 메밀묵 사려 소리에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가난하다고 해서 그리움을 버렸겠는가
어머님 보고 싶소 수없이 뇌어보지만,
집 뒤 감나무에 까치밥으로 하나 남았을
새빨간 감 바람소리도 그려보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내 볼에 와 닿던 네 입술의 뜨거움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속삭이면 네 숨결
들어서는 내 등 뒤에 터지던 너 울음.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 〈가난한 사랑 노래〉 전문 –

이 시는 '이웃의 한 젊은이를 위하여'라는 부제가 붙은 작품으로, 한 가난한 젊은 도시 근로자의 삶을 소재로 인간적인 진실의 따뜻함, 즉 휴머니즘을 노래한 시이다. 물질적으로는 가난한 자들이지만 외로움과 두려움, 그리움과 사랑을 가진 한 인간임을 시인은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가난 때문에 이러한 인간적 감정마저도 외면하고 살아야 하는 한 젊은이의 고통스런 삶을 통해서, 가난하고 소외된 삶에 대한 시인의 깊은 연대의식과 유대감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인간은 불리적으로 가난을 겪을 때 외로움, 두려움, 그리움, 사랑' 등의 정신적 감정이 심화되거나 제한받게 되어 있다. 이 작품은 이러한 이유로 마음 한 구석이 움츠러들고 쓸쓸해 할 이 땅의 젊은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쓴 것이다. 이 시 끝연에서 '가난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은 인내의 소산일 뿐이며, 인간적 진실성과 아름다움은 오히려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는 강한 역설이 숨어 있다. 집 뒤에 감나무가 있는 농촌 출신인 그는 불질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 노동자로 생활하지만 생활에 쫓겨 외로움과 두려움, 그리움과 사랑 등을 느낄 여유조차 없다. 그러나 그는 가난하지만 외로움도 두려움도 그리움도 사랑도 다 알며, 또 가난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으려는 믿음과 진실됨이 있기 때문에, 그는 자포자기하거나 현실을 비정하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기에 비극적인 현실이 가난한 사랑 노래로까지 승화되는 것이다. 이 시는 결국 인간적 진실성과 아름다움은 가난에 의해서 결코 변할 수 없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노래하고 있다. 가난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려는 인간적 진실의 따뜻함과 아름다움이 설득력 있게 표현되어 있지만 '가난'을 대하는 그의 태도는 소극적인 것처럼 보인다.

〈다음호에 계속〉

●●● 나도 작가 ●●●

3D(쓰리디) 내 마음이 쓰리다!

권민성 (유아교육과 2)

지금 모든게 3D

시험 못 봐서 내맘이 3D
지각해서 내맘이 3D
3D 3D 내 맘 모든게 3D

과 행사 생각하는 내맘이 3D
과 행사 준비하는 내맘이 3D
3D 3D 내 맘 모든게 3D

기말고사 생각하는 내맘이 3D
실습 나가는 생각에 내맘이 3D
3D 3D 내 맘 모든게 3D

과제를 하는 내맘이 3D
3D 3D 모든게 3D이지만
희망을 갖고 내 갈길을 가리라

길

김보현 (관광(마케팅)리조트과 2)

놀고 웃으며 걸어오던 길
걱정없이 걸어오던 길

어느 순간 그 길이 두 개로 나뉘어졌다

누구나 걸을 수 있고
누구나 경험하게 될 두 갈래 길

어느 쪽으로 가야 할까?

물음표로 그 가운데 서서
오늘도 내일도 고민만 하는구나